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엔 중소기업체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전조합원수의 5%범위 안에서 대기업의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협관계자는 "대기업도 혼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화 확대, 정보교환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합에 가입한 대기업은 현재 307개사로 전체 조합원 46,500개사의 0.7%에 머물고 있으나 전기·전자·통신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절실한 업종의 조합은 대기업 가입 비율이 3~4%에 이르고 있다.

포장기술인협회의 정기총회

정관개정·임원선출 등 원안통과

한국포장기술인협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3월21일 정기총회를 갖고 정관개정 및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은 사무실을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수도권에 둘 수 있도록 했고 총회, 이사회, 임원의 규정을 새로 정했다.

임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김영호, 홍순복, 이태인, 이정일, 박영식씨 등 5명이 부회장으로 새로 선임됐고, 김희용 부회장이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사에는 김운식, 이창환, 한창이, 김상근, 신정렬, 오석진, 한석호씨 등 7명이 선임됐고 이대성 이사가 퇴임했다. 감사는 이정일씨가 부회장에 선임됨에 따라 노환석씨가 새로 선임됐다.

한편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전화번호가 783-9930으로 변경되었다.

인쇄 고유업종 유지돼야

인쇄연, 관련기관에 진정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직승)는 공무원퇴직자상조회와 비영리단체의 인쇄업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정부관계부처, 민자·민주당, 국회내 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쇄연합회는 진정서에서 "인쇄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취약해 정부에서도 상업인쇄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도 공무원퇴직자 모임인 상조회와 비영리

단체가 상업인쇄업 침해를 계속하고 있어 업계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며 "정부에서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반드시 이들의 인쇄영업이 금지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서는 또 "인쇄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8천여 인쇄업체간에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3D업종으로 인식돼 기능인력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고 밝히고 "업계의 자구노력 일환으로 기능공 양성과 시설의 현대화,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많은 업체가 도산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화 축하의 자리가져

패키지디자인협회, 지난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회장 임종용)는 지난 4월 14일 타워호텔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상공부 담당자와 산업디자인개발원 유희민 원장 등을 비롯한 포장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임종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장은 상품에 있어 질만큼이나 중요하므로 포장디자이너들의 역할이 크며 이에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1979년 창립된 이래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지난달 14일 사단법인 승인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